

인공은 조연 자연이 주연인 사찰



○신도들의 시선과 동선에 따라 지그재그식 배열과 투시도적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한 유가사의 전각들. 모든 건물의 입체적 역동감을 극대화시키고 자연을 정점으로 설정한, 선의 정신이 숨쉬는 비경을 지니고 있다.

비슬산 유가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대 구시 달성군 유가사면 양리에 소재하는 유가사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비슬산·비파와 거문고의 합주가 항상 들린다. 이 절에는 지방문화재 조차 지정된 건물이 없을 정도로 열적 보편 경법산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건축'이 남아있으며,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맺어주는 본질적인 '전통'이 살아있고, 무성한 공간들이 사물의 의미를 묻고 있는 '선(禪)'의 정신이 숨쉬고 있다.

유가사의 건축적 비경은 입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잘 정비된 비슬산 등산로 어귀의 한 옆, 숲 속에 난 오솔길이 바로 유가사의 시작이다. 오솔길의 바닥은 큰 바위들로 이루어지고, 숲한 세월동안 많은 신도들의 발자국에 덮여서 맨들맨들 빛난다. 오솔길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아 울창한 나무들의 음영으로 어둡지만, 바닥만은 은은한 햇빛의 반사광이 솟아오르는 절묘한 분위기가 있다.

유가사 뿐 아니라, 조선시대 많은 산사들의 진입로 분위기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일제기와 근대화 시기를 겪으면서 자동차와 관광객을 위해 오솔길을 넓히고 숲을 깎아 탄탄대로를 만들면서 원래의 진입로들이 사라져 버렸을 따름이다. 물론 유가사에도 쉽게 밟을 수 있는 자동차 길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원래의 진입로를 피해 멀리 우회하기 때문에, 일반 방문객들은 이 신비로운 숲속

의 오솔길을 걸어서 땅을 수박에 없다. 주목해 볼 것은 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오는 진입축의 방향이다. 누각의 옆면을 끼고 마당의 서쪽 모서리를 타고 진입하며, 진입축의 정점은 대웅전과 나한전 사이의 빈 틈새를 향하게 되고, 그 사이에 나타나는 빛산의 자연을 향해 시선을 유도한 구성은 이 절의 정신을 알

나한전-용화전-산신각 지그재그식 점감 배치로 입체적 역동감 극대화

시한다. 극히 작위적으로 구성된 중정을 옆으로 비켜가는 동시에 자연을 정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공보다 우선하는 대 자연을 사찰건축의 주인공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보통 사찰건축에서는 자연이란 배경으로 설정되지만, 유가사에서는 배경 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주인공인 건축적 목표가 된다. 확대해서 말한다면, 유가사의 인공적인 건물들이란 비슬산의 대자연에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무대장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념은 비단 중심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대웅전의 서쪽, 나한전-용화전-산신각으로 연결되는 건물들 간의 관계다. 진입

한 다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웅전-나한전-용화전-산신각의 순으로 따라가며, 신도들의 동선 역시 그렇게 움직인다.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몇 가지 치밀한 건축적 조작을 통해서 얻어진다. 첫째로 건물들의 규모가 순서대로 작아지도록 점감적인 순열을 취하고 있다. 3x3칸(대웅전) > 3x2칸(나한전) > 1x1칸(용화전) > 1x0.5칸(산신각)의 순서다. 멀리있는 전각일수록 작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시각이지만, 유가사의 4등 전각들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규모들을 배열함으로써 투시도적 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둘째로 나한전-용화전-산신각이 서로 삼각형의 꼭지점에 놓여, 지그재그형으로 배열됨으로써 전각들 간의 입체적인 운동감이 강화된다. 진입축을 따라 대웅전-나한전의 틈새로 진입하면 곧바로 나한전의 정면을 타고 용화전으로 시선과 동선이 흐르게 되며, 용화전 앞에 서면 저만치 작은 산신각이 산을 등지고 정과 같이 위치한다. 웅대한 산 앞의 작은 산신각은 마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 인공에서 자연으로 사라져가는 극적인 효과를 거둔다.

마지막으로 4개의 전각들은 모두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앉아,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을 볼 때 모퉁이 부분을 바라보게 된다. 광범적인 배치도로는 일견 무질서하게 배열된 것 같지만, 실제 동선 상에서는 모든 건물이 가장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져, 작은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지 않고 극히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 글에서 묘사된 유가사의 모습은 1996년 가을의 현황이다. 독자들은 가끔씩 이 글과 사진으로만 감상하시고 현장에는 가지시 않기를 바란다. 전국의 수많은 절들의 경우와 같이, 지나친 관심과 방문이 유가사의 매력적인 환경을 악화시킬까 두렵기 때문이다.)



불교NGO들이 ASEM(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2000 민간단체 포럼과 '지구'의 날 2000 행사 등에 대거 참여하는 등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인권) 재가연대(종교) JTS(빈곤과 개발) 민족화합률교추진위원회(평화) 불교환경교육원(환경) 등 10개 단체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ASEM 2000 민간단체 포럼에 분이별(모두 12개 위원회)로 참가해 달라이 라마 방한문제, 중국정부의 티베트 탄압문제, 종교간의 화해, 북한통포 돕기 등 불교관련 현안을 적극 개진한다.

불교 NGO 국제교류 활발

민간단체 포럼 종교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희, 재가연대, 1000일정진불교연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등 21일 기독교연합회관내 사무국에서 2차회의를 열고 국내·외 섭외가 능단체 확인, '영성(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통합' 등 의제 선정, 종교문화행사 개최안, 종교인 초청(달라이 라마, 티베트, 구스타프 구티에레즈 등), 행사장소(불은사 또는 한양대) 선정 등의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제연대 활동의 좋은 선례를 남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불교NGO들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나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NGO세계대회의 경우 준비없이 뒤늦게 참여해, 열광만 내미는 정도에 머물렀다. 불교NGO의 정체성이나 자립기반이 미약한데다 정보 부재, 우물안 개구리식의 소극적인 사고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나 새 시대를 맞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구촌이 하나라는 공감대를 갖고 국제교류와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

경북련 불교인권위원회 이웃들 돕는사람들 원불교서훈장위원회는 또다른 국제NGO모임인 '지구'의 날 2000 행사에 참여한다. '지구'의 날 2000 한국위원회의는 지구(4월22일) 30주년을 맞은 이날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차없는 거리'를 지정, 국

민단체와의 연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제 구호·자선봉사 활동을 펼치는 JTS 좋은벗들 불교자선봉사연합회의 국제사업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국제구호사업에 가장 왕성하게 걸치고 있는 JTS는 7, 9월 인도 동계스와라에서 국제워크숍(노동의 선별 등), 행사장소(불은사 또는 한양대) 선정 등의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제연대 활동의 좋은 선례를 남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도희, 재가연대, 1000일정진불교연대 등은 21일 기독교연합회관내 사무국에서 민간단체 포럼 종교분과 2차회의에 참석해 회의인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97년부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국제자선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자선봉사연합회는 올 여름에 창녕에서 열리는 국제 워크숍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봉축기간에 한국 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문화행사, 바자회 등을 열 예정이다. 특히 아반(AVAN)코리아 등과 연계해 태국, 일본 등에서 열리는 국제자선봉사 워크숍에 회원들을 지속

재가연대등 10개단체 아셈포럼 참가 인드라마 해외연대 유전자식품 감시 좋은벗들 탈북주민 구호 유엔에 홍보

내의 환경 문화 여성 소비자 등 각계 시민단체 회원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당을 펼친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공동대표 도법스님)는 전국귀농농동본부 21세기 생명연대 가톨릭농민회 한 살림 등 9개 시민단체와 함께 (가칭)유전자식품(GMO)반대생명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4월경 출범예정인 이 모임은 생명환경농업의 대인운동을 실천하는 단태로서 국내의 GMO 감시·반대운동을 펼치는 한편 선진국은 물론 제3세계의 환경소비자능

분야의 국제NGO자선봉사단 등을 활용해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대한 개발구호사업을 확대해 내년까지 현지 사업장을 갖출 계획이다.

북한통포 돕기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좋은벗들은 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www.jungto.org)를 통해 탈북주민들의 국제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해외홍보에 주력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북한난민 실태 보고서를 제출, 미국난민위원회 '세계를 위한 빵'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불교단체 및 불자들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단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조계종은 지난 2월17일 불교단체들의 국제교류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총력자문기구인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양산스님)를 설치했다. 스리랑카 내갈보지역에 사회복지사업훈련센터를 건립중인 전각복지회(이사장 성초종리장장)는 한글·컴퓨터,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거나 자원봉사에 나설 국제협력자선봉사단을 모집한다.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있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NGO들이 이같은 국제교류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국내·외 NGO 단체와의 만남, 국제적인 연대의 틀 등을 모색해 적극적인 불교사회운동으로서의 이론과 조직적인 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뒷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 28cm x 높이 28cm
- 초꽃이 포함, 등갈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비어 있지 않습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규격 : 폭 28cm x 높이 28cm
- 초꽃이 포함, 등갈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비어 있지 않습니다